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 | | | | |
|----------------|--|-----|--------------|-----|-----|
| 출장자 | 평등인력정책연구실 | 직 위 | 실장 (연구위원) | 성 명 | 박성정 |
| 출장기간 | 2011. 2. 26. -3. 4 | 출장지 | 미국 뉴욕 유엔 본부 | | |
| 출장목적 | 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주차 회의에 참가 나) 제56차 여성지위위원회 주제: 우선순위 의제: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와 빈곤 및 기근 근절, 개발 및 현재 도전과제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 (The empowerment of rural women and their role in poverty and hunger eradication, development and current challenges) 검토의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Financing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제52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 | | | |
| 경비부담 | 우리 원 부담 (약 5,251,000원) | | | | |
| 주최기관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 | | | |
| 회의 주요 내용 | -농촌여성의 경제적 세력화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 예산, 재정 방안 | | | |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2. 3. 7.

출 장 복 명 자 : 박성정 연구위원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제5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

2012. 3. 7.

보고자 : 박성정
(평등인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출장일정

| 출장일정 | 내용 | |
|---------|----------|---|
| 2.26(일) | 오전 10:20 | 서울에서 뉴욕으로 출발 |
| | 오전 10:40 | 뉴욕도착, 호텔로 이동 |
| 2.27(월) | 오전 10시 | 고위급회의 |
| | 오후 3시 | 고위급회의 |
| 2.28(화) | 오전 10시 | 패널1)농촌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 | 오후 3시 | 고위급회의 |
| 2.29(수) | 오후 1시 | ‘13년 준비패널)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및 방지 |
| | 오후 3시 | 패널2)농촌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거버넌스와 기관의 역할 |
| 3. 1(목) | 오전 10시 | 패널3)제52차 CSW합의결론 이행의 국가적 경험 |
| | 오후 3시 | 패널4)국제기구 및 다자 개발 협력 파트너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진전 |
| 3. 2(금) | 오전 10시 | 합의 결론(비공식 협의) |
| | 오후 3시 | 합의 결론(비공식 협의) |
| 3.3(토) | 12:20 | 뉴욕에서 서울로 출발 |
| 3.4(일) | 16:20 | 서울 도착 |

I. 제 5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제 논의

□ 회의명 : 제56차 여성지위위원회 전문가 패널1

(The empowerment of rural women and their role in poverty and hunger eradication, development and current challenges)

1. 패널리스트 발표내용

가. Ms. MALIKA ABDELALI-MARTINI(Algeria), Socio-Economist, Community and gender Analysis Specialist

- 농촌여성이 농촌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7가지 농촌여성의 역량 증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① (경제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위험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식량위기 등 이다.
- ② (재정, 식량위기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2008,2011 금융위기가 여성의 경제불평등(노동시장을 비롯하여)을 가속화시켰다. 음식 가격의 상승이 여성의 교육, 의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농업과 비농업에서의 농촌여성) 86%가 농업이 주요 생업이다. 여성 생산자들은 정책, 문화적 규범 등의 이유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교육은 여성 역량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제한받고 있다.
- ④ (농촌여성의 토지 소유) 토지는 생산의 원천일 뿐 아니라 보안, 지위를 의미한다. 농촌 여성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성 역량증가의 핵심 쟁점이다.
- ⑤ 농촌여성은 새로운 기술,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 ⑥ 농촌여성을 대변할 만한 자치기구가 필요하다.
- ⑦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Ms. Shanaz Wazir Ali(Pakistan),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파키스탄의 경우 헌법/종교/사법에서 여성의 권리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였음. 최근 들어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600명 여성에게 10~12 에이커의 땅이 여성에게 배포.
- 여성이 주된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원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함.
- 파키스탄 정부는 건강보험, 직업훈련, 기술훈련, 긴급구호 및 물품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적을 초월하여 파키스탄 내 거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게함.
- microfinance 관련 융자에서 약 60%가 시골/농촌 지역에서 융자를 얻은 것이고, 이중 여성은 약 56%로 상승함. 시골/농촌여성(rural) 지원에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지원은 매우 유용함.

다. Ms. Anna Kaisa Karttuner(Finland), Rural Development Consultant

- 우리는 정확한 시골여성 대한 통계자료가 없고 신뢰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비

공식경제활동 분야는 더욱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여성의 소유권/소유정도(asset ownership)에 대한 정보도 정리되어야 할 필요

- 전세계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약 45%가 농업이 아닌 영역으로 부터 창출이 된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약 40%의 농업가구들이 농사 이외의 분야의 소득창출이 약 40%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음
- 시골 여성은 더욱 생산성이 낮은 일에, 비공식 경제분야(informal sector)에 주로 분포되어있다. 인포멀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되어있다.
- 성인지적 취약성(ender specific vulnerability) 집중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 및 취약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 할 수 있게 해준다. 여성들이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인식을 넓혀주며, 자신감을 복돋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성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라. Ms. Jemimah Njuki(Kenya),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 우리가 어떻게 여성농업인들의 농업생산력 증진 및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장려할지, 저렴한/접근 가능한 식량을 위한 시장(markets for affordable foods), 그리고 여성이 경제적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넓혀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발표
- 여성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자이며,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 거주민이고, 건강과 영양을 (특히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취약 계층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은 농촌 경제를 일구어가는 동등한 파트너이고, 또한 식량안보와 영양확보를 위해 같이 일해야하는 동반자이자 파트너이다.
- FAO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정보와 기회/기술에의 접근이 가능했다면, 지금보다도 약 23%향상된 생산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우리는 여성농업인들이 더욱 생산력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지역 빈곤층에게까지 그 생산된 물품이 전달 되도록, 즉 빈곤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조직운영/경영 정책에서도 성주류를 실현할 수 있어야하며, 연구 및 정책형성을 위한 과정에도 성주류화 및 여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농업적 value chain에 성인지적인 시각과 여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하겠다. agriculture value chain에서 여성이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이득을

얻고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여성이 생산 및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삶과 특징이 사회 및 조직의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야한다.

2. 우리나라 발언요지(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8%정도가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중에 여성의 비율이 52.5%에 달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정부는 2001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5년단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제 3차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업인이 정부나 민간의 각종 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적극 참여토록 기준을 제시한바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소규모 창업 지원 등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여 여성농업인이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

3. 주요국 발언내용

- 이탈리아: 식량안보를 국제적담론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G8같은 논의의 장에서 여성역량강화와 식량안보의 주제를 엮어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여성지원을 위해, 이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목표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 파키스탄 : 성인지적인 분석 및 통계 구축이 좀더 의미있는 정책적 지원에 도움된다. 토지 대장 및 등록/소유권에서의 여성 참여. 토지대장의 전산화 및 여성도 토

지 소유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오직 10% 여성만이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토지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 포르투갈 : 지난 10년간 포르투갈은, 농업활동에 변화가 있었다. 일단 도시 집중화, 고령화. 여성의 노동 참여율 약 50%, 여성은 주로 작은 기업(micro enterprises)에 종사하고 있음.

2007-2013 여성차별금지관련 농업계획에는 4가지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함이며,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 성인지적 지표 및 측정목표에 대해 포함하고 있다.

□ 전문가 패널2

가. 패널리스트 발표

○ Mali

말리 정부는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농촌여성의 토지 접근권, 기술 접근, 역량 강화, 성평등 의식 제고 등에 노력하고 있음. 2012-2017의 경우 특히 젠더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농촌 여성을 고려한 정책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이 강조됨. 위 정책은 농촌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여 농촌 여성들에게 토지 소유와 농촌 기구 사용법과 기술 제공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성인지 자료를 모으는 데 주력해야 하며 여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성 인지적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함. 효과적인 성인지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유엔 우먼의 지원이 요구됨.

○ Paraguay

파라과이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음. 파라과이의 여성은 법적, 제도적, 문화적인 이유로 금융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대출 이용에도 제한이 있음.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관습으로 여성들을 주요 생산자로 두면서도 성인지적인 사회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 여성을 고려한 농촌 기구 또한 매우 부족함. 사회 구조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및 차별과 여성 폭력은 국가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농촌 여성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자원 이용과 전반적인 의사 결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성인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2004년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여성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장려를 위한 REAF라는 특별 회의를 개최하였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은 아직도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촌 여성의 경우 문맹 비율 또한 매우 높음.

농촌 여성의 경우 식량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농촌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이 가장인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함. 농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여성과 함께 그리고

여성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적인 자원 제공과 지원이 요구됨.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율권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여성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장애 요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민 사회의 참여 또한 요구되며 기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사회 내에서 동등한 젠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모든 공적인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포함되어야 함. 농촌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성 평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빈곤 퇴치를 이루도록 노력이 필요함.

○ 파푸아뉴기니아

파푸아뉴기니아 여성은 남성이나 다른 나라 여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음. 정치참여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 국회의원 109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함. 여성은 농산물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무시되고 있음. 전통적 사회구조와 여성차별의식이 강하며, 일부다처제, 신부 매매, 강제 결혼, 주술, 폭력, HIV, 마약과 술,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음.

'변화의 소리'(Voice for Change)라는 조직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통해 여성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지난 4년간 여성의 인권 증진과 보호,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 기구는 여성들에게 금융 접근기회 제공,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재정교육, 현장방문 사업지도, 판매 지원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경제적 세력화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몰도바(Moldova)

2010부터 2015까지 성평등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 on Gender Equality)을 추진하고 있음. JISB(Joint Information and Services Bureau)사업을 통해 농촌여성의 경제 세력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JISB는 UN WOMEN의 'One Window Approach' 프로그램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음. 지역에서 한 건물에 10여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고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함. 정보와 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JISB 설립과 함께 여성의 경제적 진전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장애가 완화되기 시작함. 일명 One Window Model, One-Stop-Shop Model 인 이 사업의 수혜자의 65%이상이 여성이고 80%이상은 농촌주민으로 나타남. 앞으로 JISB 사업의 전국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는 성인지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으로 농촌여성의 경제적 세력화에 큰 성과를 거둔 것임.

나. 주요국 발언 및 질의 응답

(1) 우리나라(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

한국정부는 법과 제도의 수립을 통해 농촌여성의 권한과 지위 강화에 노력해왔음. 농촌여성을 위한 국가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음. 국가계획은 정치적 의사결정, 생산자 조직에의 참여, 지역개발에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수

산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분석을 수행하고 성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이를 위해 5년마다 여성농어업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성인지적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의식과 관습이 남아 있음. 정부는 성인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농촌의 불평등한 젠더의식과 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임. 이를 통해 농촌여성들이 농촌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2) 각국 발언 및 질의 주요 내용

EU

EU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및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 요소라고 여겨 여성이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여성이 국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함. 인적 자원은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성의 역량 강화가 강조되어야 함. 농촌 지역의 경우 여성의 리더십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성 참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Finland

여성의 경우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가정에서의 일 때문에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 우가 많음. 부모육아휴가, 아동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교육 및 직장 활동 참 여를 도와야 함. 농촌 여성의 경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촌 여성을 위 한 충분한 자원 제공이 요구되며 정책 수립 결정에도 농촌여성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권장되며 여성들에게도 토지 소유권이 동 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Italy

이태리의 경우 농촌 여성들의 정치 참여 및 의사 결정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 역정책에서 성인지적 접근에 주력하였으며 성인지 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여 성이 농촌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농촌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농촌 지역 의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옴.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 원함

일본

일본의 경우 쓰나미로 인해 농촌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 특히나 여성의 피해가 컸음.

제3차 양성평등계획을 통해 성 평등이 모든 분야에 도입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촌 여성의 경우 의사 결정 참여에 제한 받는 경우가 많음. 지진구호소에서도 여성의 요구 반영이나 결정권이 약했음.

New Zealand

뉴질랜드의 경우 농촌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 훈련 들이 다 각 면으로 제공되어옴

미국

미국은 젠더를 food security programs에서 우선 이슈로 여겨왔으며 여성들의 정치 참 여를 위해 노력해옴. 많은 국가들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프로그램에 주력 해 왔으며 농촌 여성들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구조에서의 여성들의 참여를 강조해 옴. 여성들을 위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며 효과적으로 성 인지적 정책 평가 및 모니터 링이 이루어져야 함

(3) 패널리스트 응답 요지

의사결정 참여, 재정 투자가 중요

시민사회와 국가기구의 연계협력이 중요. 정부는 농촌여성, NGO와 대화 필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여성간의 대화 증진이 중요

여성조직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 재정지원이 필요

□ 패널3: 성인지 재정

○ Mr. Mohammed Chafiki, 모로코 재무장관

- Chafiki 재무 장관은 “모로코에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responsive budgeting in Morocco: results at sector and local level)”에 관해 발표함
- 2008년 이후의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모로코 역시 위기를 경험하였고 이는 성별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약 1/4이상을 차지하는 여성고용인들에게 더욱 큰 영 향을 끼치게 됨.
-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럽국가들은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였으며, 모 로코 역시 2008년 이후 성인지 예산을 시작함. 2012년엔 공공예산에 인권의 관점 을 편입시켰으며, 각 부처는 부처의 활동영역/이슈에 대한 예산의 배정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함.
- 또한 생각의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해 인권이 불가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 공정책(public policy)에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됨.
- 개정된 보건법의 경우 보건부의 예산을 2배나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법을

통하여 6~11세 여아의 비율을 현격히 증가시키고, 지난 선거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0.5%에서 16%로 증가하는 등 공적영역(public sphere)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킴.

- 모로코는 현재 재정법을 개정하기 위한 단계에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좀더 포괄적이고, 평등적이며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Ms. Maria Almeida, 에콰도르 재무장관

- Almeida 장관은 에콰도르의 성인지 예산 추적 방법(Ecuador's gender-sensitive budgeting tracking methodology)에 관해 발표함
- 에콰도르 재정부는 2005년부터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과 함께 성인지 예산을 시행했고, 2008년부터 독일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공재정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재정 실행방안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실시했으며, 새로운 법을 재정함으로써 다인종, 다문화,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시도함. 또한 공공재정/예산 분배 시, 각 부처로 하여금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실행계획에 대해 제출하도록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이고, 성인지적 인식 즉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을 키우는 것임. 또한 국가예산편성 및 재정법 등 법/정책/계획에 성인지 예산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와 금액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에콰도르는 예산 배정을 통해 실제 정부예산/재정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함.
- 정부정보공개를 위한 섹터 별 주요 계획 및 방향에 대한 카탈로그 제작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부처별·이슈별 예산 분재를 게재하여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특히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일반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의 성별통계구축 및 성인지 예산 사용에 대해 알리고, 양성평등법이 남과 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남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것임을 알리기 위한 인식개선의 장으로도 활용함.
- 성인지적 예산의 활용과 정부정책의 개정은 결국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인식에서 평등을 통해 격차가 좁혀지고 이를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함. 나아가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 Mr. Gerhard Steger, 오스트리아 재무 장관

- Steger 장관은 공공재정 관리체계의 성인지화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경험(Making public finance management systems gender responsiv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experience in Austria)을 발표함

- 오스트리아는 예산이 성평등의 핵심 척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성인지예산을 전체 예산개혁에 통합하도록 의결하고 헌법도 국가가 성평등한 예산운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오스트리아의 성인지 예산은 성과예산(performance based budget)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서로서 결국 예산의 실행이 목표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인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공조는 큰 동력이 됨. 성인지예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투명성, 책무성 그리고 효과성의 가시화)은 예산/재정 개혁과정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서의 성인지 예산 실행을 실현하기 보다는 중요한 몇 개의 전략적 분야에서부터 시행하여,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함.
- 성별 분리통계 및 명확한 데이터는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나 이를 위한 국가적 역량은 여전히 초기단계임. 이를 위해 고비용의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보다는 실제로 예산서를 작성할 부처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및 정치적 지원, 특히 재정부 장관의 지원이 중요함.
- 성인지 예산은 몇 개 부처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전 부처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 시행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여 적어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목표 중 1개 목표 이상은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정함.

○ Dr. Ing Kantha Phavi, 캄보디아 여성부장관

- Phavi 장관은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 우선순위의 재정적 이행(Financing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riorit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에 관해 발표
-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과 훈센총리의 지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2008년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성별균형을 위해 정부공무원 채용 시 여성할당제(20~50%)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부(MOWA)와 캄보디아 국가여성위원회(CNCC)를 설립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과 및 이행/성과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또한 젠더 분야를 위한 기술지원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on Gender)를 통해 공여국/기관(UNDP, JICA), 캄보디아 간의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되던 담당관제도(focal point)에서 고위급 성주류화 실천 그룹(Gender Mainstreaming Action Group)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부처별 섹터전략 및 모니터링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캄보디아는 현재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선행조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로의 개혁이 진행 중임. 현행 예산서는 섹터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양성평등을 위한 목표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계획 이행 정도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역량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여성부와 국가

여성위원회가 다른 부처의 성인지예산/여성역량강화 목표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은 하고 있고, 여성부는 UNDP와 재정부와 공조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훈련을 착수할 예정임.

- 캄보디아의 원조효과성에 대해 언급하면, 2010년 약 10억불이 공적개발원조로 캄보디아에 투입됨. 그러나 이중 약 7백만불만이 양성평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공여되었음. 효과적인 원조의 활용을 위해 공여국/기관간의 협동모니터링 및 조율이 필요하며, 조율/협력 없이는 목표달성 및 이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파생시킬 수 있음.

○ Ms. Stephanie Seguino, 미국 버몬트 대학교 교수

-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며, 국가성평등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가 중요함. 특히 성별분리 통계는 성평등 재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 요소임.
- 미국대표는 거시경제적 제약을 고려해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것, 거시경제정책과 성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과 성평등목표를 연결할 것, 성인지적 재정정책과 공공 투자의 틀을 개발할 것, 아울러 성평등 증진에 투여한 공공재정의 영향, 성과와 기여를 분석할 것을 권고함.

나. 주요국 발언 및 질의응답

(1) 대한민국(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

- 한국 정부는 성 주류화의 기제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2011년 독자적인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국가재정법과 2011년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이 포함되었음. 2010, 2011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음. 성 주류화체제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분석도구와 매뉴얼의 개발,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였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분석대상 사업의 성인지 통계 확보, 정책과 예산에서의 성 불평등 규명, 평가사업의 75%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정책 개선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여전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 분석도구 활용의 어려움, 사업단위 성별 통계의 미흡 등의 어려움이 있음. 정부는 분석의 용이성 제고, 인식과 공감 확산, 가이드라인 개발, 분석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2) 각국 발언 및 질의답변 주요 내용

- 스위스 대표는 모로코와 에콰도르 등 성인지 예산의 실행 시 부처의 어떤대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질의하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예를 들어줄 것을 요청함.

- 짐바브웨 대표는 오스트리아 패널(Mr. Gerhard Steger 재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 정책결정자 및 주요 정치적 리더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과 성별 분리 통계가 성인지예산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를 질의함. 아울러 성인지예산 작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technical skill)을 키우기 원하나 예산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하므로 UN Women이 이 부분을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함

- 콩고 대표 역시 오스트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권력자들에게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 재정 통합 필요성을 설득했는지에 관해 질의함.
- 오스트리아 Steger 장관은 때로는 문제의 심각성이 분명하여 데이터를 사용해서 설명할 필요 없이 널리 인식이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해야한다고 함.
- 한편 정치/정책적 의사결정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적인 주요 이슈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서로 연계한 전략적 모멘텀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임을 언급함.
- 캄보디아 Phavi 장관은 데이터 없이는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의 서포트를 받기 어려우므로 통계국 등 주요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성별분리통계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모로코 Chafiki 장관은 성별분리통계 구축은 중요하며, 특히 보건/교육 분야에서 남여에게 각각 다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잡아내는 통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함.

- 러시아의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정부가 정부는 양성평등을 중요하게 보고있지 않고 양성평등 분야의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고 언급하며 정부 부처가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하는지 더 알기 위해 유럽 및 아시아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 정부가 성별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가족·어머니·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 인구/보건 정책을 통한 여성 사망률 감소 노력, 특히 출산 장려금 등 여성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등 러시아 정부의 노력을 소개함

- 파나마 대표는 사회와 시장, 계층 그리고 사회적 격차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 에콰도르 Almeida 장관은 사회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주목받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시각 및 사고체계(mind set)를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함. 예를 들어 교육과 같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예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기에 그런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설정해야 하며, 결국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어느 영역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영역에서 증액을 시켜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함. 아울러 경제위기는 늘 존재하고 몇 년 간 지속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생각과 범위에 대해서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엘살바도르 대표는 엘살바도르가 올해 2년째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고 있으며 여성관련기관 즉 여성부만이 여성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부의 협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 요르단 대표 역시 정부/부처의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양성평등이 그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 에콰도르 장관은 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시행 및 작성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는 재 정부가 다른 부처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모든 부처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너무 복잡하게 작성하지 말고, 조금씩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시민사회, 의회, 법체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패널4: 성인지 재정- 다자개발 협력

- Lydia Alpizar, Association of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Costa Rica
 - 여성은 단결된 힘(collective power)으로 페미니스트 운동을 이끌어왔으며, 최근 3-5년 간 여성과 소녀에 대한 관심이 진전되고 있음. 특히 UN Women이 창설된 것은 여성 의제가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진된 것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available) 자원은 더 적어짐. 특히 북구 국가들은 경제 위기 등으로 ODA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단체들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여성 단체만이 자산을 가지고 있고 30%이 여성단체는 자금을 축적할 능력이 안 됨.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음.
 - 자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공여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젠더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ODA를 증가시켜야 함. 또한 더 나은 자원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은 단지 얼마나 많은 돈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다자 기구 및 정부들은 여성단체 지원에 있어서 주변화된

(marginalized) 단체 등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함.

- Ms. Jeni Klugman, World Bank
 - 2012년 세계개발보고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의 분야가 내포 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경제적 성장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제로 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분야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음을 경제 데이터를 통해 보여줌. 3월중엔 동아시아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 세계은행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세계은행의 전략적 방향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설명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 삼음.
 - 세계은행의 전략적 방향은 국가 간 정책 대화(country policy dialogue), 대출 확대, 국가 진단 평가, 증거 및 자료, 그리고 파트너십임
 - 세계은행의 활동예산은 미화 약 57.3 billion이며 그중 27.7 billion은 IBRD를 통해 중진국으로 16.3billion은 저개발 국가에 사용됨. 그러나 재정 지원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며 국가 지원 전략과 정책 대화, 혁신적이며 분석적인 작업 및 증거, 그리고 파트너십이 동반되어야 함.
 - 세계은행은 양성평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있어서의 지속되는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각 국가 및 특정 지역의 수요에 맞는 양성평등 이슈를 다루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점검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Ms. Patti O'Neill, OECD GenderNet
 - 젠더마커를 분석하고 표시하는 이유는 정확한 측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젠더/양성평등을 위한 목표설정과 이행에 대한 현재상태의 순간적 묘사(snapshot)를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한 영향과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임. 또한 원조의 흐름과 지출정도를 각 공여국별로 추적하여, 해당공여국의 공정개발원조 기금이 성인지적으로 쓰이는지, DAC멤버로서 공언한 젠더 및 양성평등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보는 것임.
 - 자료 작성시 공여국이 공개한 통계자료를 사용하며, 2012년 현재 모든 DAC 멤버들은 젠더마커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24.9billion에 이룸.
 - 동료간 검토(Peer Review)에도 젠더마커 보고 결과가 사용되며, 이를 통해 공여국이 정치적으로 공언한 것과 실제 이행된 원조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이행여부를 볼 수 있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젠더마커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가능하다면 향후 인도적 지원 분야에도 젠더마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원함. 유엔 역시 공여기관으로서 유엔 전체에 걸쳐 젠더마커를 활용하기 바라며,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 바람.
- 부산세계원조총회는 공적개발원조에서 젠더분야를 위한 터닝 포인트였음. 부산의 핵심주제는 여성이슈였으며, 회의에 참여한 공여국 및 개발 파트너들은 모두 부

산에서 결정된 젠더관련 지원전략에 대해 동의했으며 참여하기로 함.

- 부산총회에 앞서 공여국/수원국은 파리선언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에 응했으며, 총 78개국 24개국에서 응답함. 이중 1/2의 참여국은 젠더를 중요한 분야로 지목하면서도 국가계획에는 제외되어있고, 또 아주 적은 예산만이 배정되어 있었음. 또한 성별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여, 실제 의사결정단계에서 활용되지 못하였음. 성인지 통계는 실제 예산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협력국의 통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함.
- 부산세계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제 6월까지 멤버 국가들의 합의/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는 국가별로 동의한 젠더 합의 내용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함. 성별분리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양성평등 의제는 체계적으로 공공 재정에 포함되어야 함.

○ Ms. Saraswathi Menon, UN Women

- 이제 2015년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들(MDGs)이 달성되어가고 있지만, 각각의 목표에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MDG5가 가장 덜 됨.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선 접근 가능한 서비스 자원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 및 이행이 있어야 함.
- 2009년 UNDP는 OECD DAC 젠더마커를 개조한 젠더마커를 도입하였음. UN Women이 의장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에 관한 유엔개발그룹(UNDG) 태스크 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자원 회계"이라는 하위그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그룹은 유엔 체계 내에서 젠더 마커의 활용을 개선하고 확정시키는 것에 관해 논의하는 플랫폼임.
- 아직까지는 젠더마커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역량이나 적절한 예산 지원 등 부족한 부분이 많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슈는 젠더마커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개하는 것과, 질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의 사용, 그리고 유엔 기관 간 젠더 마커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Ms. Liane Schalatek, Heinrich Böll Foundation (Germany)

- 기후변화 문제는 성중립적이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도구와 기금은 성인지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성인지 예산의 사용 및 양성평등이슈를 고려한 계획과 지출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며,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여성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하고 기후 관련 재정 활동이 여성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과정에서 단일한 주류화 방식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서로 연계하여 주류화시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
- 현존하는 기후 기금에는 젠더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녹색 기후 펀드(Green Climate Fund, GCF)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착수

단계에서부터 반영됨

- 이외에도 성인지적인 기후 원조가 늘어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함. 결국 공약과 실제 지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 즉 책임성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재정의 질과 양 모두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공동의 보고 지침이나 의무 보고 규정이 필요하며, 젠더 마커 사용을 기후분야 지출을 측정하는 마커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나. 주요국 발언 및 질의응답

- 북유럽 국가들을 대표하여 발언한 아이슬란드 대표는 양성평등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역량강화 및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성평등 관련 계획/전략이 있지만 실제 이에 대한 예산의 사용은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함
- 이어 아이슬란드 대표는 UN Women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지와, 세계은행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국가들의 관심사를 고려하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여성을 참여시키는지를 질의함. 아울러 국제사회의 재정 및 금융 분야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male-dominated)인데 양성평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파트너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에서의 재정 안정화와 같은 방식의 접근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인지를 질의함.
- 세계은행의 Ms. Klugman은 세계은행은 국가지원전략을 택하다보니 국가의 요청에 따라 작동하게 됨을 설명하고, 세계은행 그룹에 속한 국제 금융 그룹을 통해서 기업들에게도 양성평등 기준이 통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AWID의 Ms. Alpizar는 혁신적인 자원 조달 방법으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민간 부문의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다 노동 규약을 준수하고 실제로 양성평등을 이행하는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기회로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 스위스 대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이 남성과 여성 간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양성평등이 전체적인 평등과 사회 복지를 강화하며 경제적으로도 필수(economic imperative)라는 것이 더 많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평등은 기회이지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전략이 있는지를 질의함. 아울러 AWID의 Ms. Alpizar가 제기한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적 원조 접근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 스위스는 이러한 단체도 지원하고자 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 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는 지 알려줄 것을 요청함.
- UN Women의 Ms. Menon은 유엔은 Global Compact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 협력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양성평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민간 부문이 그들만의 정책 원칙과 젠더 균형(gender balance)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 지를 이해하고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 등 value chain과 시장 영역에서의 역할을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또한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것(stereotyping)은 민간 부문 및 미디어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함.

- AWID의 Ms. Alpizar는 재정 지원은 안정적인 큰 기관을 대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 기여 전략을 만들어서 작은 기관에 나누어 주는 방법을 고려함으로써 풀뿌리 기관들이 재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지역 여성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풀뿌리 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함.

○ 파키스탄 대표는 기관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율이 중요한데 한 기금에 대한 NGO 간 경쟁이 심하다보니 국가적으로 통합된 노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함. 따라서 의미 있는 합의를 위해 정책 대상 설정을 잘 해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함.

- UN Women의 Ms. Menon은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하며 실제 필요한 여성 및 기구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행되는가를 추적하고 있다고 답함.

○ 우간다 대표는 다양한 추적 도구를 통해 어디에 재정이 배분되고 어떤 결과가 창출되었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다고 하며, 실제 이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와 시간 및 노력이 더 가중되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질의함.

- Heinrich Böll Foundation의 Ms. Schalatek은 각 국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고 추적하기보다는 공동의 조화된 형식을 활용하면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더 많은 지표를 만들어내기보다 더 현명한(smarter)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NGO 대표로서 국제무역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증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원칙에 기초한 완전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전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질의함.

- AWID의 Ms. Alpizar는 특히 양질의 이슈에 관해, 빈곤에 처한 여성들이 인간다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양자리 일자리 프로그램은 서로 통합될 수 있는 연결된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함.